

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828호

2003년 4월 8일(화)



내가 만드는 인터넷 외대학보 ihUFSan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 발행인 박정민 편집인 김경민 주간 김경민 편집장 김경우 인쇄부 흥주주 신문사 951-4151, 952-7126 흥주지사 (서울) 951-4152, 959-8887, 951-4183 F (광진) 931-330-4112 서울시 광진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 양산리 399



대학



사회



사람



문화



미국, 그 폭격의 역사여

인종주의의 표독한 얼굴이여

전쟁은 '무력'을 써서 하는 싸움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무력이 전쟁에서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단순으로는 '폭격'이다. 폭격은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적의 군대, 시설, 국토를 파괴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행위이다. 흔히 '전쟁'이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폭격이 떠오르기 때문에 전쟁의 과정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폭격'을 가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폭격'이라는 행위에 힘의 논리를 관철된다.

힘 있는 나라와 힘 없는 나라가 전쟁을 할 때 폭격은 힘 있는 나라가 쓰는 방법이다. 전쟁에서 제공권은 주로 군사기술적 우위에 선 나라가 강약하기 때문이다. 폭격이라는 행위 자체가 군사기술적 우위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지금의 이라크 전쟁에서도 폭격은 세계최고의 군사기술적 우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전유물이다.

현재 미국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정당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데 차이 나는 것은 상작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때문이 아니라 자들의 구미에 맞는 전시정부를 세워 이라크의 석유를 원활하게 징악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며,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가 아니라 차

들의 대량살상무기 마음껏 소비하여 경기의 활력을 가져오고, 모든 것을 파괴하여 젤 더기가 된 이라크의 복구 사업하기 노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어느 폭격의 목적이었다. 그렇듯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라면 국제법이고 유엔이고 모두 무시하고 경제차단 구조 미국을 뺀다면 그들 미군을 그렇게 나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인식 또한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미국이 '동맹'이라는 인식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광복을 받아낸 미국이 말로 해방의 '은인'이며,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민주주의 남한을 수호하기 위해 기까지 한 한국전쟁과 함께 해준 미국이 아卑로. 우리는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서인지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지금의 이라크 전쟁에서도 폭격은 세계최고의 군사기술적 우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전유물이다.

미국은 그 유익을 인정하는 것은 굳이 설명하려드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인가?

더 이상 이 '신화'를 미망 신봉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미국이 주도하는 '폭격'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이번주 외대학보 주제기획은 '폭격의 역사와 그 본질'이다.

▶주제기획 4.5면

대학생들, "파병결정은 역사의 오점"

지난 4일 파병반대 대학생행동의 날 종묘 공원에서 열려

4일(금) 반전평화를 열망하는 대학생 800여 명이 한강에서 모였다. '미국과 이라고 전쟁 중단·한국군 파병 철회·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학생 행동의 날'에서 이들은 전쟁반대 한국소리를 높였다.

청년대학생반전위원회 이종우 간사의 사회로 전쟁반대 이벤트 활동의 날은 학생단체들의 투쟁발언과 함께 교수노조 활동인 교수님 지지발언, 그리고 투쟁경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첫 순서는 산성여대 총학생회장(연대회의 의장) 주연미 양의 발언이 있었다. 평화를 상징하는 하늘색 치마를 입고 무대위로 몰라온 주연미는 '돌이켜'라는 암을 젊어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폭행 결정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국기독교대학생총연합회(한기연) 회장 김바울은 '12월동안 고려대 민주평생에서 전쟁반대 금식기도를 진행했다. 이라크 민중들의 피 위에서 민족의 평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에서 아직까지도 거의 '신화'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청년한 촛불시위를 하면 서도 우리의 시위는 반미가 아니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려드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인가?

더 이상 이 '신화'를 미망 신봉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미국이 주도하는 '폭격'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이번주 외대학보 주제기획은 '폭격의 역사와 그 본질'이다.

▶주제기획 4.5면

전쟁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공동행보에 대해 황상이 교수는 "청년학생들이 일어서니 나라를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앞날에 희망이 있어 보인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밝혔다.

이어 이영훈 군(한종련 일시외장 관련대행)은 "대량살상무기를 살피면서 멍목으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미국과 폭격행위에 맞서 이 제视线을 시작하겠다"며 규탄했다.

마지막 순서로 백제아군(고려대 대량살상무기 반전집회)은 "더 이상 공격한 학살과 한국 정부가 학살방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암을 젊어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폭행 결정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며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수 '학생들은 학교별로 동맹휴업을 전개하고, 12월 국제 반전평화 행동의 날에도 대규모로 투쟁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종로 거리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밤늦은 2시에 다시 모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리나라 폭격사

“쳇, 한반도쯤...”

미국은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라는 명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이는 곧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에 맞서 민주주의 남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미이며, 또한 이는 미국이 정부 이후 50여년 동안 미군으로 수시로 주시면서 고 있는 명분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명분일 뿐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이 오히려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전쟁계획을 수립한 명분을 해왔으며, 남한 국민들을 지켜주기에는 거칠 헤아릴 수 없이 꼼짝하고 반복적인 살상과 범죄를 일삼아온다는 것은 ‘이란다’다. 몇 년간 밝혀진 ‘노근리 학살’에서도 드러듯 한미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면모 또한 그들이 내린 명분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제3공군은 거의 100% 미군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은 남한과 북한을 가리지 않고,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그대로 한반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무아이든 표적이 된 ‘무차별적 폭격’이었다.

엄청난 암의 폭탄과 네이팜탄의 투하
미국의 군함, 폭격기, 대포는 한반도 전역을 헤아려 둘렀고, 45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죽었는데 4명중 3명은 민간이었다. 미군은 한국전쟁 기간 엄청난 암의 무기를 한국에서 소비하여 자신의 군수산업체들을 세계 최고의 기업들로 만들어주었는데,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은 한반도를 폭탄과 폭탄의 양은 1㎢당 평균 30~40kg에 달한다. 평양만 하더라도 경쟁 30~40kg 등에 무려 40만~8000개의 폭탄과 네이팜탄은 석유암석으로 만든 폭탄으로, 당시에서 폭죽과 네이팜이 조그만 산탄으로 사방에 퍼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태우고 사람의 살을 불어서 물을 불태워버리는 무서운 살인무기였다.

당시 미 국립원자력 연구원과 사령관이었던 오트웰은 1953년 6월 백여 대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마군의 일자리인 관심은 미국과 갖고 있는 힘의 최대한으로 파괴되어 도시들을 쟁취하기로 만들고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북한이 무서운 충격에 놀래서 전쟁에서 물러서게 하는 데 있었다. 미군은 남한과 북한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일반 민간인과 비군사시설의 보호에 대해 어떤 관심도 가지려고 않았다. 당시 한반도의 모든 것이 미군의 폭격대상이었다.

전쟁범죄로 금기시된 딤 폭격
미 공군의 국동 사령관이자 유엔공군 사령관인 웨이랜드는 “(dim 폭격은 한민

에서 가장 멎았던 공습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1944년 네덜란드에서 베일 니체가 덤 폭격을 한 바 있는 결국 이 행위는 뉴욕 배르그 회의에서 전쟁범죄로 다루어졌고 그 이후로 덤 폭격은 전쟁에서 금지가 되는 행위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전쟁에 서 범죄적 덤 폭격을 적극 구상하였고 부터 범죄적 덤 폭격을 적극 구상하였고 부터 같은 3/1을 생산하는 지역의 관리시설에 물을 공급하는 평양군과의 50km를 톡剔시켰다. 그 결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인사였다. 미군 정보국이 흥수가 사방까지 이를까 걱정했다는 사실에서 덤 폭격이 얼마나 위험였는가 그 쪽과 참상을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 수 있다.



‘폭탄’ 사용 계획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 한국전쟁 발발 2주 후부터 한반도에 폭탄을 쏘 것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2차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핵폭탄으로 꼼짝한 미행은 온 인류가 그들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전쟁에서는 핵폭탄의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하였던 것이다. 핵폭탄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핵폭탄의 사용에 대해 고려했다는 것은 한국전쟁 참전의 명분을 무색하게 한다. 이는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주의 남한을 수호하기는커녕 자국들의 목적, 즉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이 갖고 한반도 평온은 지구상에서 없어져도 상관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김정기 기자
77knee@hanmail.net

미국의 베트남 폭격사

최강의 군대가 최약의 군대를 공격하다

베트남전이라 하면 훈장을 헬기를 탄 미군들이 첨성 속으로 날아 들어가 베트콩과 쌔우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지만, 베트남 전쟁은 프랑스에 대한 독립운동과 남부 베트남전의 전쟁으로 두 시기로 나누어야 한다.

1954년 5월 프랑스군의 거점인 디엔비엔푸의 학교로 같은 해 7월 휴전을 위한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1945년 프랑스군 사령관에게 베트남은 1945년 서 범죄적 덤 폭격을 적극 구상하였고 부터 같은 3/1을 생산하는 지역의 관리시설에 물을 공급하는 평양군과의 50km를 톡剔시켰다. 그 결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인사였다. 미군 정보국이 흥수가 사방까지 이를까 걱정했다는 사실에서 덤 폭격이 얼마나 위험였는가 그 쪽과 참상을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 수 있다.

로 늘어났다.

(작전명 블링컨더): 1965년 2월 7일, 그때 까지 소강상태에 있던 전선에서 베트콩의 공격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1965년 2월 13일 이온라 블링컨더라 불린 엄청난 규모의 항공작전이 펼쳐졌다. 미군들은 이 계획명을 와일드 웨블이라고 불렀다. 미군들은 이 계획명을 와일드 웨블이라고 불렀다. 미군들은 이 계획명을 와일드 웨블이라고 불렀다.

암흑의 필요에 의해서 미국과 베트남은 교전에서 1965년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외교성을 기지기로 하였다. 결국 서로의 의견의 차이만을 확인하는데 그친 양측의 교섭이 일주일밖에 걸렸다가 미군들이 다시 폭격에 돌입했다. 새로운 폭격작전은 ‘블링컨더 II’라고 새로이 명명되면서 북위 20도선을 넘어서까지 미군기들의 공격목표들이 설정되었고 더욱 대규모의 폭격작전이 진행되었다.

결국 1973년 1월 27일 베트남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협정에 관한 ‘파리협정’이 미국·남ベ트남·북ベ트남·베트남 대표의 의견의 차이만을 확인하는데 그친 양측의 교섭이 일주일밖에 걸렸다가 미군들이 다시 폭격에 돌입했다. 새로운 폭격작전은 ‘블링컨더 II’라고 새로이 명명되면서 북위 20도선을 넘어서까지 미군기들의 공격목표들이 설정되었고 더욱 대규모의 폭격작전이 진행되었다.

(와일드 웨블 계획): 소련은 베트남전에서 고문들을 발견하고 윌朋군을 교육시켰다.

최민지 기자
iterr1004@hanmail.net

다. 이에 미군과 해군은 본격적인 폭격 준비를 하기로 했다. 3월 2일에 미국과 남ベ트남 군과 함께 폭격기들이 베트남 해의 어뢰전 공격을 계기로 미군은 직접 전투에 참가했다. 통킹만 사건은 개입의 기회만을 노렸고 있던 미국은 철호의 밤비를 제공하였다. 항모 헤이데르고가 미군에게 제작된 A-1 스트라이커와 공격기와 44 대의 F-105 썬더스트리 그하고 20대의 B-57 폭격기가 출동하여 1회 격침, 2회 대파의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미지상주의 두텁이 54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전비(戰備) 또한 54억 달러에서 288억 달러

(와일드 웨블 계획): 소련은 베트남전에서 고문들을 발견하고 윌朋군을 교육시켰다.

미국의 이리크 폭격사

‘자막의 폭풍’부터 ‘충격과 공포’까지

1990년 8월 이리크의 퀴웨이트 항공을 계기로 1991년 1월 17일 ~ 28일까지 이리크에서는 ‘시리아 폭격’이라는 작전명으로 미국은 비롯한 연합군이 침투하는 지역에서 폭격을 통해 이리크 150명의 사상자를 냈고 공중폭격으로 발전소, 비행장, 통신시설 등의 주요시설이 거의 파괴되었다. 걸프전 당시 미군은 이리크의 각종 시설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로 복구되지 않았다. 또한 무역금지조치로 생활필수품들이 제제 공급되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초기시설의 부족으로 입원이 어려워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걸프전 당시 미국이 이리크의 탱크를 폭파시키기 위해 사용한 열화수탄은 폭탄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이리크 지역 주민들이 후유증으로 유산, 기형아 출산, 유전자 변형 등의 인체적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 열화수탄 폭탄은 미세한 나비 방울을 끼고 있어 걸프전 후유증이라는 이상 증상을 낸다.

또 미국 정부는 걸프전 이후 이리크의

상수도 시설을 고의적으로 파괴하였다. 조지워싱턴 경영대학원의 토머스 나기 교수는 국립정부기관(NIA)이 1991년 1월 22일 작성한 ‘이리크 심수도 처리 취약성’이라는 문서를 찾고 내어 이에 대해 밝혔다.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리크는 심수도 정화장치의 경우 수돗수의 혼합 수용에 없는 구조로에 있는데 이 물은 염소로 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염소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 이리크 경제제재로 이리크에서 수돗수의 불가능한 품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이면 이리크의 상수도 시설은 파괴될 것이다’라고 언해 이리크 인구의 상당수가 식수부족과 질병에 허덕일 것이다.

이 문서 외에도 미군은 이리크에서 발생한 ‘질병경보’에 관한 문서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제3세계 협약에 명시된 어려한 폭격으로도 민간인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 차물, 가축, 식수, 관

개, 의약시설을 파괴하거나 놓고 없게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명백한 국제법을 위반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고 하겠다.

지금 ‘충격과 공포’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대 이리크 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리크 내의 민간인 폭격으로 현까지 민간인이 최소 200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곽예미 기자
ganzhiyemi@hanmail.net

개, 의약시설을 파괴하거나 놓고 없게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명백한 국제법을 위반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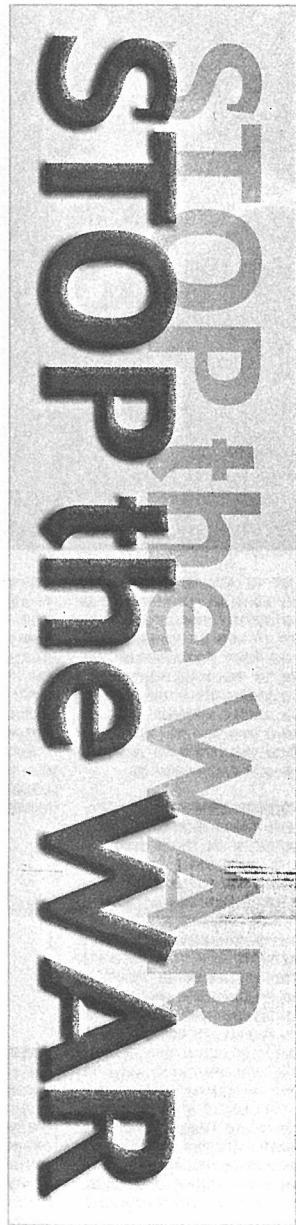
지금 ‘충격과 공포’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대 이리크 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리크 내의 민간인 폭격으로 현까지 민간인이 최소 200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곽예미 기자
ganzhiyemi@hanmail.net

여러분을 위한 자리, 비워놓습니까!

- 대 상 : 02, 03학번 새내기
- 문 의 :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사
- 홈페이지 : www.ihufsan.com

- 기 간 : 4월 16일(수)까지
- 전자우편 : oedaepress@hanmail.net
- 연락처 : 031)330-4112
011-9843-0022



온인배터 수습기자 추가모집

민족자주언론
온대학보

